

통일부, 탈북청소년과 미국 대학생이 함께하는 '창의공학 통일캠프' 개최

-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(이하 '미래센터')는 5월 19일(월)부터 28일(수)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'창의공학 통일캠프'를 진행했다.
 -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,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,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.
 - 1차 캠프(5.19.~23.)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'드림학교' 학생들이, 2차 캠프(5.26.~28.)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'우리들학교' 학생들과 전국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탈북청소년들이 참가했다.
 - 미래센터에서는 △VR-통일미래체험 △통일탐사단(한반도투어링) 등 연수 프로그램과 △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 △“한반도 통일과 국제 평화” 특강(국립통일교육원 정진현 교수)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,
 - 미국 머서대* 측은 △3D프린팅 △레고 로보틱스 등 창의공학과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.
 - * 머서대(Mercer University)는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탈북청소년 대상 '창의공학 통일캠프'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, 2023년부터는 미래센터에서 진행
- 이번 캠프에 참가한 탈북청소년 이영란(18세, 가명) 학생은 “처음에는 영어가 부담스러웠지만, 미국 대학생들과 캠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, 팀별로 레고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대회를 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”라고 말했다.
 - 머서대 Michelle Mwaura 학생은 “탈북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매우 특별했고, 북한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”라며, “이번 캠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앞으로도 미래센터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며,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

붙임 : 캠프 관련 사진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	책임자	센터장	박상돈 (031-839-7901)
		담당자	주무관	이정훈 (031-839-792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

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배경으로 캠프 참가 기념사진



레고 로보틱스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 레이싱 대결을 펼치는 모습



창의공학 영어캠프의 영어수업 모습



미래센터 내 38선 표지판에서 캠프 참가 기념사진



학생들이 3D스캐너를 통해 친구의 모습을 스캐닝하고 있는 모습



통일미래체험 종료 후 단체 기념사진